

정소우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미국드라마와 한국어더빙본에 나타난
백채널 (Backchannel) 비교연구

2009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혜란

미국드라마와 한국어더빙본에 나타난
백채널 (Backchannel) 비교연구

정소우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영어교육전공

김혜란

인 준 서

김혜란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개요

대화란 말하는 사람의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화자)과 듣는 사람(청자)과의 상호작용속에서 이루어진다. 대화에서는 화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청자의 역할도 중요하며, 청자가 화자의 이야기에 적절한 반응을 보일 때, 대화는 더욱 활기있고, 윤택해진다. 이때, 청자가 화자의 이야기에 언어적, 비언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백채널(Backchannel)이라고 하는데, 백채널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어교육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영어를 실제상황에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정숙희, 2000) ‘의사소통 능력 향상’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중점에서도 다루고 있는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드라마와 한국어더빙본을 비교하여 백채널 표현의 기능 및 표현형식의 차이를 알아보고, 미국 드라마내에서 등장인물별, 성별로 백채널의 표현과 기능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실제 영어수업에서 백채널을 효율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제1장에서는 백채널의 연구목적과 필요성을, 제2장에서는 백채널의 정의와 기능 및 형식을 구분하고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 사이에 나타난 백채널을 비교하였고, 미국드라마에서의 성격 및 성별로 백채널의 기능 및 표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분석결과 및 제언을 이야기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 모두 백채널 기능 중 설명요구 기능이 가장 많고, 그 뒤로 동의·긍정의 기능, 감정적 반응 기능, 새로운 정보 표시 기능이 나왔다.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에서 백채널 횟수에 큰 차이

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 더빙본이 원 드라마의 문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백채널 표현을 적절히 반영하여 표현하였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미국드라마에서의 백채널 표현을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일반적인 대화로 바꾼 경우도 보였는데, 이는 서구문화권이 동양문화권보다 감정표현에 스스로움이 없는데, 언어가 이러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백채널 표현형식을 보면,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 모두 ‘yeah’, ‘oh’, ‘그래’ 등의 맞장구어사 표현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뒤로 반복 표현, 환언 표현, 말았지르기 표현이 나왔다. 사용빈도가 높은 백채널 표현을 보면, 미국드라마와 한국어더빙본 모두 반복 표현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반복 표현, 환언 표현, 말았지르기 표현외의 맞장구어사 표현으로는 미국드라마에서는 ‘yeah’, ‘oh’, ‘what’, ‘o.k.’, ‘good’ 등이,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그래’, ‘네’, ‘뭔데?’, ‘아’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백채널 사용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의 등장인물의 경우, 설명요구의 기능이 많이 나타났고, 다정하고 감성적인 성격의 등장인물의 경우, 감정적 반응의 기능 또는 새로운 정보 표시 기능, 동의의 기능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미국드라마에서의 백채널 기능을 보면, 남성들은 설명요구 기능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으로 동의·긍정의 기능이 많고, 여성들은 새로운 정보 표시 기능, 감정적 반응의 기능, 동의·긍정의 기능이 고루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백채널 표현형식비교에서는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에 비해 맞장구어사 표현뿐만 아니라, 반복 표현, 환언 표현도 더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남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는 다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대화자간의 문법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의사소통 전략 등이 어우러져야 하는데, 백채널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교육의 주요 목적중 하나는 실제상황에서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적절한 백채널 표현 사용을 연습하게 함으로써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백채널 교육방법으로는, 우선 학생들에게 백채널 기능과 표현형식을 미리 설명한 후,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을 보면서 백채널표현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룹별로 다른 상황을 주고, 학생들이 대화문을 만들어 상황극을 하도록 하여, 실제로 백채널을 사용하여 대화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	---

II. 백채널

2.1. 백채널의 정의	4
2.2. 백채널의 기능 및 표현형식	7
2.2.1. 백채널의 기능	8
2.2.2. 백채널의 표현형식	17
2.3. 선행연구	27

III. 미국 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에 나타난 백채널 비교분석

3.1. 연구의 관점 및 연구방법	32
3.1.1. 연구의 관점	32
3.1.2. 연구 방법 및 절차	32
3.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35
3.3.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의 백채널 기능 비교	36
3.4.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의 백채널 표현형식 비교	43
3.5. 한국어와 영어의 백채널 표현	50
3.6. 등장인물 성격에 따른 백채널 기능 비교	52
3.7. 성별에 따른 백채널 기능 및 표현형식 비교	54

IV. 결론 및 제언	57
-------------------	----

참고문헌

ABSTRACT

<표 목차>

<표 1>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의 백채널 기능	37
<표 2> 미국 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의 백채널 표현형식	44
<표 3> 사용빈도가 높은 백채널 표현형식 - 미국드라마	48
<표 4> 사용빈도가 높은 백채널 표현형식 -한국어 더빙본	49
<표 5> 한국어와 영어의 백채널 표현	50~51
<표 6> 등장인물 성격에 따른 백채널 기능	52
<표 7> 성별에 따른 백채널 기능 비교	54
<표 8> 성별에 따른 백채널 표현형식 비교	56

<도표 목차>

<도표 1>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의 백채널 기능 분포	36
<도표 2>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간의 백채널 표현형식 비교	43
<도표 3> 성별에 따른 백채널 기능 분포	54
<도표 4> 성별에 따른 백채널 표현형식 분포	56

I. 서론

1.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의사소통활동은 상호협력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호협력작용은 화자와 청자의 주고받음이 자연스럽게 원활할 때 그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성공적인 대화에서 화자와 청자는 교과서나 책을 읽듯이 서로의 역할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거나 받거나 화자와 청자역할을 번갈아가며 이야기를 진행시킨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Hess & Johnston(1988)도 주장하였듯이, 언어 기술, 담화, 문맥, 상황 정보 등의 적절한 사용은 물론, 화자와 청자 등의 담화 참여자사이의 원활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져 한다.¹⁾ 이 중 담화 참여자 사이의 원활한 상호작용은 참여자들이 단순히 발화순서에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 화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의 발화에 대한 동의 또는 이해 여부를 언어적 혹은 비언어적 도구를 이용하여 전달하는 청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때, 청자가 화자의 이야기에 언어적, 비언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우리는 백채널(Backchannel) 이라 한다.

의사소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백채널의 중요성은 그 용어를 처음 사용한 Yngve(1970)를 비롯한 많은 문헌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특히 Mey(2001)는 대화의 교통관리자로서의 청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백채널이란 대화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청자가 사용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또한, 와타나베(1994) 등은 백채널이 모국어를 이용한 의사소통만이 아니라 외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1) Hess & Johnston(1988)의 연구내용과 주장은 정숙희(2000)를 참고한 것임

있다.²⁾

백채널을 이용한 청자의 반응이 의사소통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은 노은희(2001)와 같이 판소리의 추임새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판소리에서 소리꾼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 옆에서 ‘얼씨구’, ‘좋다’ 식의 고수의 추임새가 판소리의 흥을 돋우는데 큰 역할을 한다는 것 역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고수의 추임새가 소리꾼으로 하여금 흥을 내게 함으로써 판소리 전체의 흥을 더욱 고조시키듯이, 일상적인 담화에서도 청자의 백채널은 화자의 의사진행을 원활하게 하는데 일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청자는 백채널 사용을 통하여 담화 진행에서 소극적인 역할이 아닌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화자는 이와 같은 청자의 적극적인 반응을 보며 대화의 완급을 조절해 나갈 수 있다. 화자가 이야기하는 동안 청자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며, 이야기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어 계속 발언을 해야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듯, 화자의 이야기에 대한 청자의 적절하며, 적극적인 반응은 활기있고 성공적인 의사소통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감안할 때 청자 역할의 중요성을 알 수 있지만, 지금까지는 많이 인식되지 않았다.

영어교육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영어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는 또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과 중점에서도 다루고 있는 중요한 교육목표중 하나이기도 하다. 진정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담화특성 및 의사소통 상황 등을 고려한 예문을 통한 말하기 교육은 물론, 담화 상황에 알맞은 백채널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

2) 와타나베(1994)의 연구 내용과 주장은 배소현(1998)을 참고한 것임

본 연구에서는 훌륭한 청자의 역할,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필수요소인 백채널에는 어떠한 기능이 있고, 그 형식은 어떠한지,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백채널 사용이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자료로 조사한 드라마들을 통해 비교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II장에서 백채널 기능구분과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연구대상, 본 연구가 가진 제한점, 미국 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을 비교하여 백채널 사용빈도와 표현형식,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에서의 표현, 미국 드라마에서 등장인물의 성격과 성별에 따른 백채널 표현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IV장에서는 백채널 연구가 영어교육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영어교육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기로 한다.

II. 백채널

2.1. 백채널의 정의

백채널은 backchannel, back-channel, back channel 로도 표기되며, 한국어에서는 ‘맞장구’, 일본어에서는 ‘aizuchi’란 표현으로 쓰이고 있다.

백채널 용어를 처음 도입시킨 것은 Yngve(1970)로서, Yngve는 백채널이란 의사소통과정에서 화자의 이야기에 대해 청자가 관심이나 흥미의 표시로 짧은 언어적 신호 또는 고개를 끄덕이는 등의 비언어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화자는 말차례를 넘기는 일없이 청자로부터 “yes” 또는 “uh-huh”와 같은 간단한 메시지를 받으며, 백채널은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다.

In fact, both the person who has the turn and his partner are simultaneously engaged in both speaking and listening. This is because of the existence of what I call the back channel, over which the person who has the turn receives short messages such as “yes” and “uh-huh” without relinquishing the turn. The partner, of course, is not only listening, but speaking occasionally as he sends the short messages in the back channel. The back channel appears to be very important in providing for monitoring of the quality of communication. If you are listening on the long distance telephone and stop sending the expected short reassuring messages, grinding halt and say something like, “Hello, are you still

there?" (Yngve 1970 : p. 568)

Duncan(1974)은 청자백채널 신호(auditor back-channel signal)는 말차레를 구성하거나 요구하지 않으며, m-hm과 같은 언어표현, 문장 완성, 설명요구, 간단한 재진술, 머리 끄덕이기 등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구분한다고 하였다. 또한, 백채널을 통해 청자는 대화의 상호작용속에 참여하게 되며, 청자는 화자의 메시지에 대하여 이해 또는 이해 부족 등을 나타낸다고 말한다.

Maynard(1986)는 발화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동안, 상대가 발화자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는 청자의 역할을 하는 것을 백채널이라고 정의하였으며,³⁾ Gardner(1997)는 백채널 피드백은 TRP에서 체계적이며 압도적으로 발생한다고 하며 하나의 말차레로 보았다.⁴⁾

Mey(2001)는 일본어에는 “yes”에 해당하는 “hai” 나 “ee”, “I see”에 해당하는 “soo”와 같은 발화부터 모음과 자음형태, 투덜거리거나 숨을 빨아들이는 소리에 이르기까지 무려 150여가지의 백채널 표현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Ward 와 Tsukahara(2000)는 백채널 정의를 상대의 발화내용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이며, 임의적(optional)인 표현으로써, 말하면서 상대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노은희는 (2001)는 맞장구를 청자가 현 화자의 발언권을 인정하면서 화자와 그 발화에 보이는 언어적, 비언어적 반응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리고, 둘이 마주 서서 치는 장구로, 남의 말에 덩달아 호응하거나 동의하는 일을 의미하는 '맞장구'와, 망치를 서로 맞부딪친다는 'aizuchi'란 개념이 화자에게 보다 긍정적인 뉘앙스를 풍기는 것에 비해, 백채널이란 그 두 표현보다 중립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3) Maynard(1986)의 연구와 내용은 Uematsu(2000)를 참고한 것임

4) Gardner(1997)의 연구와 내용은 정숙희(2000)를 참고한 것임

Cogdill, Kilborn, Fanderclai 그리고 Williams(2001)에 따르면, 백채널의 사전적 의미중 하나는 외교 교섭등의 ‘비밀(비공식) 경로’라는 뜻이며, 정부나 정치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정책이나 결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해 종종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또는 백채널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또한, 임귀열(2005)은 정보통신분야에서, 백채널이란 발신자와 수신자에게만 보이는 비밀스러운 통신을 허용하는 것, 즉, HTTP로 이어지는 인터넷 브라우저나 기타 쿠키(cookie) 등의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서 제작자는 이용자의 정보와 사용 행태를 알 수 있도록 한 것, 최근에는 광고나 스파이웨어가 나도 모르는 사이 PC에 들어와 설치되고 개인 정보를 빼가는 것도 모두 백채널 방식을 의미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일반 대화법에서의 백채널이란, 상대가 하는 말에 uh-huh, yeah와 같은 언어적 표현을 하거나, 머리를 끄덕이는 비언어적 표현을 함으로써, 화자가 하는 이야기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상대에게 의미를 확인하거나 되묻고, 관심을 보이는 표현도 많다. ‘What do you mean?’ 혹은 ‘I’ll say that again’ ‘You didn’t say that earlier’ ‘We’re getting nowhere’ 혹은 ‘We’ve been over this before’의 표현이 이에 해당된다고 하였다. 노은희(2002)는 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침묵을 지키면 화자가 청자가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지 대화 내용을 해석하고 있는지 확신할 수 없으며, 대화를 계속 진행하기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고 말한다.

학자들마다의 백채널 정의는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이를 종합해보면 백채널은, 대화 도중에 청자가 화자에 대하여 언어적, 비언어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다.

2.2. 백채널의 기능 및 표현형식

백채널의 기능 및 표현형식의 체계적인 분류는 명확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그 구분에 있어 연구자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령, 청자가 화자이야기에 대한 백채널을 나타내더라도, 그 반응 뒤에 청자가 말차례를 갖게 되면 이것은 백채널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의견, 물음에 대한 대답 역시 백채널의 개념을 갖는다는 의견, 이해 및 부정의 기능도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자도 있었다.

Gardner(1997)는 청자의 입장에서 일상적인 대화(casual conversation)의 백채널 기능을 계속적 표현 기능(continuer 예: mm), 새로운 정보 표시 기능(newsmarker, 예: oh really), 감상적·평가적 기능(evaluative comments, 예: oh no), 특정부분에서의 설명요구 기능(clarification request, 예: what is it?), 동의 기능(agreement, 예: sure)등 다섯 종류로 분류하였다. Bruner(1979)는 청자의 웃음도 백채널 피드백으로 보았으며, 웃음을 통하여 화자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고 말하였다.

Maynard(1997)는 백채널 기능을 계속적 발화요구 기능(continuer), 내용에 대한 이해 기능 (display of understanding of content), 화자의 판단에 대한 지지 기능(support toward the speaker's judgement), 동의 기능 (agreement), 강한 감정적 반응 기능(strong emotional response), 관련 정보에 대한 수정 또는 설명 요청 기능(minor addition, correction, request for information)으로 분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Maynard의 계속적 발화요구 기능, 감정적 반응 기능, 동의의 기능, 이해 기능, Gardner의 새로운 정보 표시 기능, 설명 요구 기능과 함께 동의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기능까지 7가지 백채널 기능을 분석하고,

비언어적인 부분은 제외하기로 한다.

백채널 표현으로는 언어적인 표현과 비언어적인 표현이 있으며, 언어적인 표현에는 “yeah” 또는 “I see”와 같은 표현과, 다른 말로 바꾸어 표현하는 「말바꿈(환언)」, 화자의 이야기 전체 혹은 일부를 반복하는 「반복」, 화자가 이야기하려는 것을 먼저 예측하여 청자가 먼저 말하는 「말앞지르기」 등이 있으며 비언어적인 표현으로는 고개 끄덕임, 미소, 웃음, 놀라는 표정 등이 있다. (배소현, 1997)

2.2.1. 백채널의 기능

백채널의 기능별 예는 다음과 같다.

1) 계속적 발화 요구 기능 - okay, yeah, um, hm uh-huh

청자의 주된 역할은 화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다. 청자가 화자에게 동의하지 않아도, 또는 화자의 이야기를 모두 이해할 수는 없더라도, 화자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게 되면, 화자는 대화를 지속하게 된다.

아래 (1)의 장면에서 르넷은 전 직장동료를 대형마트에서 우연히 만나 반가와하며 이야기한다.

(1) Natalie : Lynette. How long has it been?

Lynette : Years.

Uh, how are you? How's the firm?

Natalie : Good. Everyone misses you.

Lynette : ***Yeah.***

Natalie : We all say if you hadn't quit, you'd be running the place by now.

Lynette : ***Yeah***, well...

Natalie : So... how's domestic life?

< Desperate Housewives season 1-1 중에서 >

오랜만에 만난 직장동료 나탈리의 계속되는 이야기 중간 중간에 르넷은 잘 경청하고 있음을 표현하는 “yeah”라는 백채널의 계속 신호를 보여주며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나가고 있다. 만약 르넷이 나탈리의 이야기에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고 단지 듣기만 한다면, 나탈리는 머쓱해져서 더 이상 이야기를 진행시킬 수 없을 것이다.

2) 새로운 정보 표시 기능 - oh, really? did they?

oh, really 같은 표현은 화자의 이야기가 청자에게는 새로운 뉴스임을 알려주는 것으로서, 화자는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를 알려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야기를 계속할 힘이 난다. 새로운 정보표시에 대한 예문은 다음과 같다.

(2) Mrs. Huber : I-I was, um, just admiring your new measuring cup.

Julie : ***Yeah***, we lost ours.

Mrs. Huber : ***Really?***

Julie : So I couldn't find the clothes. I'm sorry.

Mrs. Huber : That's okay.

Julie : If you want me to keep looking...

Mrs. Huber : No, you've done more than enough, truly.

< Desperate Housewives season 1-2 중에서 >

(2)의 장면에서 이디의 불탄 집 잿더미속에서 계량컵을 주운 후버부인이 그것이 이디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의아해 하던 중에, 이디에게 줄 옷을 구하러 수잔의 집에 간다. 쇼핑봉투 속에 있는 새 계량컵을 보고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후버부인이 줄리에게 새 계량컵 이야기를 하자, 줄리는 원래 쓰던 계량컵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이 말에 후버부인은 깜짝 놀라 “Really?”라고 이야기하며, 이디아줌마에게 줄 옷을 못 찾겠다는 줄리의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성급히 집을 떠난다.

3) 동의 · 긍정의 기능 - *that's right, sure, yeah, I think so , I see*

동의를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에 대한 긍정의 태도로 계속 신호보다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서,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 외에도 화자의 이야기에 찬성하고 있음을 드러내므로 화자가 더욱 힘을 얻어 이야기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한다.

(3) Bree : Paul. Zachary.

Paul : Hello, Mrs. Van De Kamp.

Bree, you shouldn't have gone to all this trouble.

Bree : It was no trouble at all.

Now, the basket with the red ribbon is filled with desserts
for your guests,

but the one with the blue ribbon is just for you and
Zachary.

It's got rolls, muffins, breakfast-type things.

Paul : Thank you.

Bree : Well, the least I could do is make sure you boys had a
decent meal to look forward to in the morning.

I know you're out of your minds with grief.

Paul : *Yes, we are.*

Bree : Of course, I will need the baskets back once you're done.

Paul : *Of course.*

< Desperate Housewives season 1-1 중에서 >

(3)의 장면에서 브리는 아내와 엄마를 잃은 폴과 잭에게 빵을 직접 구워
가 위로한다. 브리는 얼마나 경황이 없는지 이해한다며, 폴과 잭을 위로하다
가도, 가져온 빵 그릇은 다시 돌려달라고 말하여 폴과 잭과 주변 모든 사람
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Bree의 “I know you're out of your minds with grief.” 라는 의견에
Paul은 “**Yes, we are**”라고 함으로써 동의를 나타내고 있으며, “I will need
the baskets back once you're done.”라는 이야기에 “**Of course**”라는 동

의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4) 감정적 반응의 기능 - no, great, how awful, oh my god

청자가 화자의 말에 놀람이나, 기쁨, 슬픔, 성냄, 동정 등의 여러 가지 감정을 표출하면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시킬 수 있다.

(4) Susan : Edie, would you like to join us for dinner?

Edie : Oh, that's so sweet.

No, I don't want to intrude. Three's a crowd.

Mike : No, it's not like that. I mean, Susan's bringing Julie.

Susan : *Yeah*, it's not like that.

The more, the merrier.

Edie : *Well*, this will be fun.

All right.

Mike : Tomorrow night. We'll eat at 6:00.

Edie : *Great.*

Oh, and, Susan...

< Desperate Housewives season 1-2 중에서 >

(4)의 장면에서는 위스테리어가로 새로 이사 온 마이크와 저녁식사를 하려는 수잔 앞에 동네의 소문난 바람둥이 이디가 나타난다. 수잔은 내키지

않지만, 예의상 다 같이 저녁 먹을 것을 제안하고, 이디는 마이크와 수잔의 오붓한 저녁식사를 방해하는 것 같아 싫다고 사양하더니, 두 사람이 재차 권하자 “좋다!”며 흔쾌히 응한다. 그 뒤에 나오는 이디의 “Great”란 반응은, 실은 이디가 저녁식사초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를 알 수 있는 감정적인 표현이다.

다음 장면에서도 감정적인 반응을 볼 수 있다.

(5) Susan : Julie!

Mike Delfino just invited us to dinner friday night.

Julie : *He did? Cool.*

Susan : But only I’m going, because you’re going to come down with something semi-serious that requires bed rest and fluids.

< Desperate Housewives season 1-2 중에서 >

(5)의 장면에서는 엄마 수잔이 마음에 두고 있는 이웃집 마이크 아저씨가 수잔과 줄리를 저녁식사에 초대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줄리가 “He did? Cool”이라고 하며 기쁜 마음을 표현하는 장면이다. 줄리의 반응에 신이 난 수잔은 셋이 저녁식사를 하기로 했지만, 둘이서만 오붓하게 데이트를 해야 하니, 줄리는 아픈 걸로 하고 자신만 가겠다고 말한다.

5) 설명 요구 기능 - what, what do you mean?

청자는 화자의 이야기를 듣다가 이해가 잘 안되거나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근거나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함으로써 대화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백채널의 적극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 장면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6) Lynette : Stop, Stop, stop stop it !

Kid1 : But, mom!

Lynette : No, you are going to behave today.

I am not going to be humiliated in front of the entire neighborhood.

And just so you know how serious I am...

Kid2 : ***What's that?***

Lynette : Santa's cell phone number.

Kid1 : ***How'd you get that?***

Lynette : I know someone who knows someone who knows an elf, and if any of you acts up, so help me, I will call Santa, and I will tell him you want socks for Christmas.

You willing to risk that?

Kids : UH,

Lynette : *Okay*. Let's get this over with.

< Desperate Housewives season 1-2 중에서 >

(6)의 장면을 보면, 네 아이의 엄마인 르넷이 매리의 문상을 가면서 아이들에게 떠들 경우 산타클로스에게 전화한다고 으름장을 놓아 아이들을 조용히 시킨다. 그리고, 아이들의 호기심을 이용하여 르넷이 뭔가를 알고 있다고 아이들에게 말하자,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그게 뭐냐?**what's that?**"고 묻고, 산타할아버지 핸드폰 번호라고 하자, "그걸 어떻게 알았냐?**how'd you get that?**"이라고 다시 물어본다. 이처럼 설명요구는 화자가 말한 것에 대해 청자가 구체적으로 더 알고 싶을때 사용하는 백채널의 한 기능이다.

6) 이해 기능 - **Yeah, I know**

화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청자가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으로서, 화자는 청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안심하고 이야기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7) Susan : I just wanted to come by and say hello, you know,
see how you guys a doing.

Paul : We're trying to move on. It's been pretty tough.

Susan : ***Yeah***, I could only imagine.

I mean, not knowing why Mary Alice...

Paul : ***Why what?***

< Desperate Housewives season 1-2 중에서 >

(7)의 장면은 아내 메리의 자살로 충격과 상심에 빠진 폴에게 수잔이 다가와 위로를 하는 장면이다. 슬픔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다는 폴의 이야기에 수잔은 충분히 “이해한다 **Yeah**” 고 말한다.

7) 동의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기능

청자는 화자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화자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을 때 이러한 표현을 한다.

(8) Veronica : I've gotten in touch with the Diocese about Lincoln. The bishop may be able to he-

Michael : That won't stop it, it'll only delay it. [He looks around.] You want to do something? You find out who's trying to bury him.

Veronica : [Looking confused.] Nobody's trying to bury him. The evidence was there.

Michael : ***The evidence was cooked.***

< Prison Break season 1-1 중에서 >

(8)의 장면에서 베로니카는 옛 애인 링컨의 감형을 위해 가톨릭계와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하자, 마이클은 정말 형을 위한다면 누가 이런 일을 꾸미는지 알아보라고 한다. 베로니카는 링컨이 부통령의 동생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있다the evidence was there”고 하자, 마이클은 “증거는 조작되었다**the evidence was cooked**”라며 베로니카의 의견을 반박한다.

2.2.2. 백채널의 표현형식

1) 맞장구어사 표현

백채널 표현에서의 맞장구어사는 한국어에 있어서는 ‘뭐라고’, ‘진짜야?’ ‘세상에’, ‘그게 무슨 뜻이야’, 등의 표현을 말하며, 영어에서는 ‘oh’, ‘oh my god’, ‘really’, ‘yeah’ 등의 언어를 뜻한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9) Tom : Hey, is anybody home?

Lynette : I wasn't expecting you for a week.

Tom : I have to go back to frisco in the morning, but I got your call. You sounded a little frazzled.

Lynette : ***Yeah.*** It's been a little rough.

< Desperate Housewives season 1-1 중에서 >

(9)의 장면은 남편 톰이 생각보다 빨리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것을 본 르네가 반가워하는 장면이다. 르네가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출장에서 빨리 돌아왔다는 남편 톰의 말에 르네는 동의의 표현으로 “맞아 Yeah”라고 말한 후 “너무 힘들었다 It's been a little rough.”고 하소연을 한다.

다음 장면에서도 백채널 표현을 볼 수 있다.

(10) Bree : Page one of the philanderer's handbook.

Susan : *Yeah*, and then he got this zen look on his face, and he said, "you know, Susan, most men live lives of quiet desperation."

Lynette : Please tell me you punched him.

Susan : No, I said, "really? And what do most women lead lives of noisy fulfillment?"

Mary : ***Hmm. Good for you.***

Susan : I mean, of all people, did he have to bang his secretary? I had that woman over for brunch.

< Desperate Housewives season 1-1 중에서 >

아래 (10)의 장면은 메리의 친구들이 다같이 모여 수잔의 남편 칼이 바람핀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다. 바람을 핀 수잔의 남편 칼이 남자들이 얼마나 힘든 존재인지를 아냐며 바람핀 것에 대한 어이없는 변명을 했다고 말하자, 위스테리어가 친구들은 수잔이 어떠한 대답을 했을지 궁금해 한다. 이에 수잔이 여자들은 또 얼마나 대단하게 사는 줄 아냐며 남편 칼에게 쏘아붙였다고 하자 메리는 “잘했다 **Hmm. Good for you**”며 칭찬을 한다. 메리의 격려에 힘입어 수잔은 더 흥분하여 남편과 바람난 비서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2) 반복 표현

화자가 말한 문장 또는 단어를 청자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화자의 말에 호응하는 표현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그것이

곧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분석한 드라마를 보면 반복 표현은 동의보다는, 주로 화자의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때,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을 요구할 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복”이라는 표현형식은 같지만, 기능은 어떻게 다른지 다음의 예문들을 보며 비교해본다.

① 동의 기능

(11) Michael : So how do we play this? You hook me up with a few weeks supply?

Sara : [Laughing.] Nice try. No hypo's on the floor.

Michael : I'm the farthest thing from a junkie. Trust me.

Sara : I've got news for you Michael, trust me means absolutely zero inside these walls. The only way you're getting that insulin is if I'm administering it.

Michael : Guess we'll be seeing a lot of each other then.

Sara : [Packing up and smiling] ***I guess so!*** [She walks away, and Michael smiles.] [Under the prison, an origami crane floats along in the drainage pipes.]

< Prison Break season 1-1 중에서 >

의무실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교도소내의 구조를 익히기 위해 마이클은 자신이 당뇨병환자라고 거짓말을 한다. 의무실 의사인 사라에게 마이클은 당

노치료약을 한꺼번에 주냐고 묻자, 사라는 교도소내에 주사기는 반입금지라고 말한다. 마이클이 그럼 앞으로 서로 자주 보겠다고 말하고, 사라는 “아마 그렇겠죠 **I guess so**” 라며 마이클이 한 말을 반복한다. 여기서 사라가 마이클이 한 말을 긍정의 의미로 반복 사용하는 것을 통해, 사라는 마이클에 대해 좋은 감정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② 설명요구 기능

(12) Lincoln : What the hell are you thinking, Michael? How we doing?

Michael : The infirmary.

Lincoln : *The infirmary.*

Michael : It's the weakest link in the security chain. As long as I get that PUGNAC, I'll get all the access I need.

< Prison Break season 1-2 중에서 >

장면 (12)에서 형 링컨을 감옥에서 탈출시키겠다는 마이클의 생각에 링컨은 어이없어 한다. 마이클이 해결 방법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교도소 의무실인데, 교도소 의무실과 탈출이 무슨 관계인지 모르는 링컨은 마이클이 한 말“**the infirmary**”을 그대로 반복하며, 마이클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마이클은 링컨에게 그 의미를 설명한다.

③ 감정적 반응 기능

(13) Bree : First of all, your father can't eat onions. He's deathly allergic.

And I won't even dignify your navy bean suggestion.

So... how's the osso buco?

Andrew : It's okay.

Bree : ***It's okay?***

Andrew, I spent three hours cooking this meal.

How do you think it makes me feel when you say "it's okay" in that sullen tone?

Andrew : Who asked you to spend three hours on dinner?

< Desperate Housewives seanson 1-1중에서 >

완벽주의자인 브리에게 남편과 아이들은 모두 불편해하고, 항상 훌륭한 요리와 깨끗한 집에 오히려 진저리를 친다. (13)의 장면을 보면 브리가 정성껏 만든 OSSO BUCO(송아지 요리)의 맛이 어떤지 아들 앤드류에게 물어보는데, 앤드류로부터 감탄 또는 감사의 인사는 커녕 "It's okay"라는 엇드려 절받기 식의 무성의한 대답을 듣는다. 브리는 이런 대답에 기막혀하며 아들의 말을 반복하고, 곧바로, 자신이 가족들을 위해 세시간동안 정성껏 요리를 했는데, 돌아오는 대답이 기껏해야 "it's okay"라며 분개해한다.

④ 동의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기능

(14) Edie : All right, I guess.

Oh, is somebody having a party?

Mike : No, Susan's just throwing me one of her traditional
welcome-to-the-neighborhood dinners,
only I'm cooking...and having it at my house.

Edie : Ha ha. ***Traditional***, huh? I didn't get one.

< Desperate Housewives season 1-1중에서 >

(14)에서는 새로 이사온 매력적인 배관공 마이크와 함께 저녁을 먹을 구실을 찾던 수잔은 이사 온 이웃에게 저녁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라며, 마이크에게 저녁식사를 제의하고, 둘은 곧 저녁식사를 같이 하기로 한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이디는 마이크로부터 수잔이 이사온 사람에게 저녁을 대접하는 것이 그녀만의 “전통traditional”이라고 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내 수잔의 다른 속셈을 눈치채고 “**traditional?**”이라고 수잔의 말을 따라하며 비웃는다.

⑤ 새로운 정보의 기능

(15) Mrs. Huber : And I need to be at my best.

Edie Bri's son is spending the night tonight.

Susan : ***He's spending the night?***

Mrs. Huber : Apparently, Edie is having a gentleman friend over for dinner, and I think she plans on entertaining into the wee hours, if you know what I mean.
Oh, here's some antacid. Have you ever tried this?

< Desperate Housewives season 1-1 중에서 >

(15)의 장면에서 후버부인으로부터 오늘 밤 이디의 아들을 봐줘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수잔은 깜짝 놀라 "He's spending the night?"이라며 후버부인의 말을 반복한다. 수잔은 후버부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디가 혹시 자신이 좋아하는 마이크와 데이트하기위해 후버부인에게 아들을 맡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 것이다. 수잔의 놀라는 반응에 흥이 난 후버부인은 이디의 데이트에 대해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3) 환언 표현

환언이란 화자가 말한 것을 청자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으로, 대부분 화자가 말한 내용을 청자가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표현하는 것이다.

(16) Veronica : Why would somebody want to set you up?

Lincoln : It wasn't about me, it was about him.

Veronica : *Steadman?*

Lincoln : [Frustrated] Yes!

< Prison Break season 1-2 중에서 >

(16) 장면에서 베로니카는 자신이 결백하다는 링컨의 말을 믿지 못하고, 왜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들이 아무 이유없이 링컨을 살인자로 몰겠냐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자, 링컨은 “나”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이라고 하고, 베로니카는 링컨이 “그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을 “steadman?”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확인한다.

(17) Maggio : Dunno. There was no return address on the envelope.
Just [he sighs] this folded up bird, made of paper.

Abruzzi : [Pausing in realization] *Like origami?*

Maggio : Yeah, like that! Like origami!

< Prison Break season 1-1 중에서 >

아브루지는 조직의 보스로 부하가 자신의 살해현장을 목격한 부하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교도소에 들어온다. 위 (17)장면에서 마이클은 자신을 도와달라며 아브루지에게 종이접기 새를 주고 가는데, 아브루지는 그 후 부하로부터 자신을 밀고한 놈에 대한 자료가 들은 봉투에 종이로 만든 새(bird, made of paper)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종이로 만든 새를 어떻게 설명해야할지 몰라서 찢찢매는 부하에게 아부르지는 그것이 혹시 “origami”냐고 말을 바꾸어 물어본다.

4) 말앞지르기

화자가 해야 할 말을 청자가 대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화자의 말을 청자가 가로챘다고 해서 화자가 기분나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이 앞으로 할 말을 예상할 정도로 자신의 생각과 뜻이 같다고 생각하여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다. 청자가 화자 대신 한 말을 화자가 다시 한번 반복하며 대화를 이어나가기도 한다. 박미경(2005)에 따르면, 청자의 말앞지르기는 화자의 이야기를 계속 잇는 역할도 하고, 마무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말 앞지르기에서 청자가 화자의 의도를 너무 앞서가거나, 잘못 예측하여, 말 앞지르기를 할 경우, 대화가 중단될 수도 있다.

(18) Gabrielle : What kind of problems could she have had?

She was healthy, had a great home, a nice family.

Her life was...

Lynette : ***Our life.***

Gabrielle : No, if Mary Alice was having some sort of crisis, we'd have known.

She lives 50 feet away, for god's sakes.

Susan : Gabby, the woman killed herself.

Something must have been going on.

< Desperate Housewives season 1-1 중에서 >

행복해 보이던 이웃 메리가 자살을 하자, 위스테리어가 친구들은 충격에

빠진다. 평온해 보이는 메리의 삶은 곧 “**우리들의 삶 Our life**”이었던 것이다. 위 장면 (18)에서 가브리엘은 메리의 삶에 무슨 문제가 있었겠느냐, 메리는 건강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멋진 가족이 있고, 그녀의 삶은..하고 다음 이야기를 하려는 순간, 르넷은 “**Our life**”이라고 가브리엘이 할 이야기를 앞서 말한다.

다음 장면에서도 말앞지르기의 예를 볼 수 있다.

(19) Lisa : He was arrested.

Lincoln : *For what?*

Lisa : Possession of Marijuana. [She looks at LJ and sighs] I figured he could use some Fatherly advice before it's...
[She stops suddenly.]

Lincoln : *Gone forever?

Lisa : I didn't mean that.

Lincoln : *I know you didn't.* Thanks Lisa. [Lisa nods shortly and turns on her heel. Lincoln turns to LJ.] Sit down.
[Lincoln and LJ sit down.]
Dope huh? Using or dealing?

<Prison break season 1-1중에서>

링컨과 마이클이 교도소에 들어온 후 링컨의 아들 LJ는 방황하며, 공부는 등한시 하고, 마리화나 운반책을 하다 적발되는 등, 엄마 리사의 속을 썩힌다. (19)장면에서 리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LJ를 타이틀 방법을 찾지

못해, 교도소에 있는 링컨에게 아들 LJ를 데려간다. 링컨의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LJ에게 방향을 끝내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주었으면 하는 리사의 속마음을 링컨이 미리 알아채고 “gone forever?”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다.

2.3. 선행연구

국내논문 대부분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비교 또는 한국어 자체에 대한 연구였으며, 국외자료는 영어와 일본어의 비교가 많아 영어와 한국어를 비교하는 선행 연구조사는 상대적으로 자료가 미약하였다. 이러한 자료들은 대부분 문화와 언어의 차이가 백채널의 기능과 표현을 달라지게 한다는 의견들이다.

한국어에서 나타나는 백채널의 개념으로는 맞장구라는 것이 있는데, 노은희(2002)에 따르면, 맞장구라는 것은 청자가 계속해서 화자에게 발언권을 줄 의도가 있다는 메시지를 화자에게 알리고, 화자의 순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아가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화자에 대해 우호적임을 보인 것이라고 한다. 맞장구의 형식으로 맞장구어사와 반복 표현이 있음을 이야기하며, 맞장구에는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는 비언어적표현이 더욱 많으며, 대화는 화자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은 맞장구를 쳐줌으로 화자를 격려하고, 실마리를 찾아주는 청자가 있음으로 인해 진전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OLATEJU 와 YUSUF(2006)는 신제국주의 아프리카 정치인의 이기심과 우매함을 풍자한 희곡 Our Husband Has Gone Mad Again에서 백채널이 드라마의 코믹함과 우스꽝스러움을 어떻게 고조시켰는지를 보여주었다. 또

한 백채널의 다양한 형태를 조명하였으며, 등장 인물들간의 담화 기능을 분석하고, 이것이 전체적인 문맥을 이해하는데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를 살펴 보았다. OLATEJU 와 YUSUF는 백채널이란 담화에 속해있는 대화자들의 관심, 이해, 집중과 동의를 보여주고, 대화를 부드럽게 이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백채널은 담화에 있어서 특별한 시점에 발생되는데, 이것은 음성적 또는 비음성적으로 화자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저자들은 각 등장인물들의 백채널 표현과 표현횟수, 히어링 체크(hearing check) 표현 횟수를 살펴보았으며, 주인공들이 사회적 교육적 노출정도에 따라 다른 백채널을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백채널표현들이 모두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며, 어떤 표현들은 단순히 공백채우기(gap filler)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ooh’, ‘uh’ 등은 대화에서 주의를 요할 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두 나라의 언어를 비교 분석한 자료들은 국외로는 영어-일본어 비교가, 국내로는 한국어-일본어 비교분석이 많으며 영어-한국어 비교분석은 소수에 불과하였다.

Uematsu(2000)는 원어민과 비원어민의 일본어와 영어대화분석에서 많은 백채널이 일어나는것을 볼 수 있었다.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 (가) 영어대화에서는 비원어민의 영어표현이 가장 많은 백채널과 반응표현(reactive expressions)을 보였으며, 일본어대화에서는 비원어민의 일본어표현이 가장 적은 백채널과 반응표현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 실험에서는 영어대화 비원어민만 여성(일본인)이었고, 다른 3명은 모두 남성이었기 때문에, 객관적 결과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 (나) 일본어대화보다 영어대화에서 계속(continuer)표현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다) Maynard의 다섯가지 백채널 기능구분, 계속 기능(Continuer), 이해 표현 기능(Display of understanding on content), 화자에 대한 감정이입과 지지기능 (Support and empathy toward the speaker), 동의 기능(Agreement), 강한 감정표현 기능 (Strong emotional response)에 덧붙여 '이해하지 못함(Non-understanding)'이라는 기능적 카테고리를 포함시켰다.

(라) 일본어 대화에서 'un'과 'u::n"을 자주 사용했는데, 이것을 백채널 기능에서 '타자수정(other-initiated self-repair)'⁵⁾의 좋은 예로 보았다.

(마) 영어대화에서 일본인 발화자가 중복되는 계속표현(overlapping continuer)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대화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용인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배소현(1998)은 한일대학생들의 실제 담화를 대상으로 맞장구표현의 사용빈도와 표현형식을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표현”까지 포함하여, 성별차, 친소차로 나누어 수량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회언어학적인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맞장구표현은 한국인에 비해 일본인이 월등히 많다.

(나) 일본인은 언어표현, 비언어표현, 언어+비언어표현을 골고루 사용하는데 반해 한국인은 언어표현 또는 비언어표현을 주로 사용하였다.

(다) 양국모두 고개를 끄덕이는 비언어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였고 고개 끄덕이는 횟수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5) “타자수정(other-initiated self-repair)”이란 화자가 말한 것을 청자가 이해하지 못하였을 때, 상대방의 발화를 이해하기 위하여 청자가 화자에게 발화의 수정을 요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I need a new bolt for my oil filter.

B: A BOLT?

A: I mean for my oil PAN

(라) 반복, 말앞지르기, 말바꿈(환언)의 경우도 일본인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인은 화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마) 일본인의 맞장구표현형식은 한국인에 비해 2배가량 더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사용빈도와 표현형식 모두 개인차가 나타났다.

(바) 양국 모두 남자보다 여자가 맞장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남자는 반복, 말앞지르기, 바꿈말을, 여자는 감성적표현과 단어를 반복하여 열심히 듣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반복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사) 양국 모두 문미, 접속조사, 종조사의 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아) 양국 모두 친하거나 동성일때 맞장구표현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맞장구표현의 빈도는 심적 부담과 반비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숙희(2000)는 백채널피드백 전략 교수가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단계에서는 우리나라 학생이 한국어와 영어로 대화를 할때 어떠한 백채널을 사용하는지를 조사한다. 이후 일정기간동안 백채널에 대한 교육을 시킨 후 2단계에서 표현의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3단계에서는 영어 원어민학생들은 대화에서 백채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실제 대화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가) 1단계에서 한국어의사소통에서는 풍부한 상호작용속에 적절한 백채널 피드백을 보였으나 영어의사소통에서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다.

(나) 백채널 피드백에 대한 중점적인 교육이후에 실시한 2단계 실험에서는 뚜렷한 상호작용의 변화를 볼수 있었다. 전체 백채널 피드백의 증가와 언어적인 백채널 피드백이 두드러졌으며, 가장 흔한 기능은 계속 신호였다.

(다) 3단계에서 원어민학생들은 짧은 백채널뒤에 긴 발화가 이어지는 형태의 백채널을 많이 보여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평가적인 표현과 설명요구 기능에서 우리나라 학습자들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적극적인 표현을 구사하고 있었다.

(라) 성별에 따른 특징을 보면, 일정기간동안의 백채널 피드백 전략학습후에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겹쳐말하기나 끼어들기 횟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어민의 경우, 남학생은 발언권을, 여학생은 화자를 지원하기 위해 백채널 피드백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정숙희는 영어 백채널 피드백 전략 교수는 영어 상호작용에서 청자로서의 역할을 늘려가는데 긍정적인 변화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수업현장에 도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미영(2008)은 고등영어 5종 교과서와 회화교재 3종을 선택하여, 사회언어학적 변인과 의사소통 전략을 토대로 양적, 질적 분석을 하였다. 사회언어학적 변인으로는 화제, 장소, 대화참여자의 관계, 대화양식을, 의사소통 전략으로는 백채널 피드백, 상호 수정, 반복, 필러담화표지, 주저함을 분석 기준으로 삼았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교과서 대화문은 회화교재에 비해 다양한 상황을 제시하지 못했고, 대화 전개가 지나치게 교훈적이고 상투적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졌다.

(나) 교과서 대화문은 의사소통 전략이 사용된 빈도가 회화교재의 절반에 불과했으며, 각 전략별로 특정 표현에 편중되어 반복 사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위의 결과에 따라, 김미영은 교과서 대화문을 자연스럽게 다양한 상황으로 제시하고, 원어민이 자주 사용하는 의사소통 전략을 활용할 것과, 교사는 의사소통 전략의 중요성을 알고, 이를 교수법에 활용할 것을 제언하였다.

Ⅲ.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에 나타난 백채널 비교분석

3.1. 연구의 관점 및 연구방법

3.1.1. 연구의 관점

백채널을 정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청자가 화자의 이야기에 반응을 한 후, 말차례를 가지면, 이는 백채널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백채널 후에 말순서를 이어 받더라도, 화자의 이야기에 반응을 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백채널로 간주하기로 하고, 고개 끄덕임, 웃음 등의 비언어적인 표현은 제외시켰다. 기능면으로는 계속적 발화요구의 기능, 새로운 정보표시 기능, 동의·긍정의 기능, 감정적 반응의 기능, 설명 요구 기능, 이해의 기능, 동의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기능으로 구분하였다.

3.1.2.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를 위해 다른 두 종류의 미국드라마 2회분과 한국어 더빙본 2회분을 자료조사하였다. 미국드라마는 국내 공중파와 케이블 등에서 방영되어 한창 우리나라에 ‘미드’의 열풍을 몰고 온 <Desperate Housewives 위기의 주부들 시즌 1-1, 1-2: 2004년>, <Prison Break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1-1, 1-2 : 2005년>를 선택하였다. 두 드라마 모두 최신작으로 현재 시점의 백채널 사용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고 판단되어 선정하였으며, 두 드라마 모두 시즌 1의 1, 2회, 회당 42~44분이다. 두 드라마의 원본과 한국어 더빙본의 백채널을 비교해보면서 미국과 한국의 백채널 적용방식 및 빈도수를 비교해보고, 어떠한 형식, 기능의 백채널을 사용되었는지를 조사하기로 한다. 그리

고, 등장인물들간의 백채널 횡수를 비교하여 인물간의 성격과 성별과의 백채널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들의 방영 시간은 다음과 같다.

Prison Break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1-1	43분 42초
Prison Break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1-2	44분 9초
Desperate Housewives	위기의 주부들	시즌 1-1	42분 38초
Desperate Housewives	위기의 주부들	시즌 1-2	42분 38초

분석자료를 삼은 드라마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 Desperate Housewives 위기의 주부들 >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 한 교외 마을. 주부 메리가 자살을 하고 남은 4명의 주부들은 영문을 모른 채 당황스러워한다. 사랑에 목말라하는 이혼녀 수잔과 완벽주의 성격 탓에 주위사람들을 숨막히게 하는 브리, 네 아이의 엄마로 아이들과 매일 전쟁을 치르는 르넷, 어린 정원사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모델 출신 가브리엘이 주인공으로, 그들의 삶을 코믹하게 때로는 미스터리어스하게 보여주는 것이 특징이다.

메리의 죽음을 둘러싼 비밀을 큰 축으로 이들 네 주부와 그들의 가족, 애인, 이웃의 일상과 사랑, 비밀과 일탈이 흥미롭게 펼쳐진다.

주인공들의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수잔 - 동화작가로, 남편 칼의 바람으로 이혼을 하고, 딸 주디와 함께 살고

있으며, 순수하고, 간혹 철이 없어 딸 주디가 엄마 노릇을 하기도 한다. 매사에 잘 하려고 하는 일이 더 큰 화를 불러 일으키지만, 착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넘친다.

브리 - 뭐든지 잘해서 주위사람들은 브리와 그녀의 가족들을 부러워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브리의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피곤해 한다.

르넷 - 왕년에 잘 나가던 커리어우먼이었지만, 지금은 네 아이의 엄마로 육아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텨나가고 있다. 하지만, 늘 상황과악이 빠르고, 현실감각이 뛰어나서 위기상황을 잘 헤쳐나간다.

가브리엘 - 잘나가는 뉴욕 모델출신으로 인생을 즐기며 산다. 남편을 사랑하지만, 아이갓기는 원치 않으며, 사업으로 바쁜 남편 때문에, 외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결국 미성년자인 정원사와 연애를 한다.

< Prison Break 프리즌 브레이크 >

마이클 스코필드의 형 링컨이 미연방정부의 음모로 살인사건에 말려 사형선고를 받게 되고, 스코필드는 형을 빼내려고 일부러 사건을 만들어 형이 있는 교도소로 들어가게 된다. 탈출 방법은 일단 교도소 작업장에서 간수휴게실을 통하여 탈옥한 후, 간수휴게실에 구멍을 뚫어 놓고 의무실로 가는 것으로 스코필드는 이미 몸에 건물의 청사진을 문신으로 해놓았기 때문에 길을 알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교도소 의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라는 마이클과 그의 형, 다른 간수들의 탈출에 도움을 주게 되고, 링컨의 옛 연인 베로니카가 링컨 사건의 미스터리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사라와 베로니카에게는 예상치 못했던 위험이 닥친다.

형 링컨과 함께 마이클이 감옥을 탈출하는 내용을 빠른 전개속도로 흥미진진하게 보여주어 많은 이들로 하여금 ‘미드’열풍을 일으켰다.

주인공들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마이클 - 뛰어난 지능을 가진 건축설계사로 교도소 건물을 설계한 적이 있다. 우연히도 그 교도소에 누명을 쓴 형 링컨이 복역중이고, 형을 교도소에서 탈출시키고자 완벽한 각본을 짜고 교도소로 들어온다.

링컨 - 동생 마이클을 아끼고 사랑하는 형으로, 음모에 의해 부통령 동생살해범이라는 누명을 쓰게된다. 사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같은 교도소에 마이클이 들어오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동생이 자신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걱정한다.

베로니카 - 링컨의 옛 연인으로 현재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링컨이 음모에 의해 희생양이 되었다는 마이클의 이야기를 듣고 반신반의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 사건의 내막을 파헤치려다가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사라 - 주지사의 딸로 교도소 의무실의 의사로 근무하고 있다. 정치적인 아버지와는 달리 인간적이며, 마이클에게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후 마이클과 죄수들의 교도소 탈출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주지사인 아버지와 딸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맞게 된다.

3.2. 연구의 내용 및 제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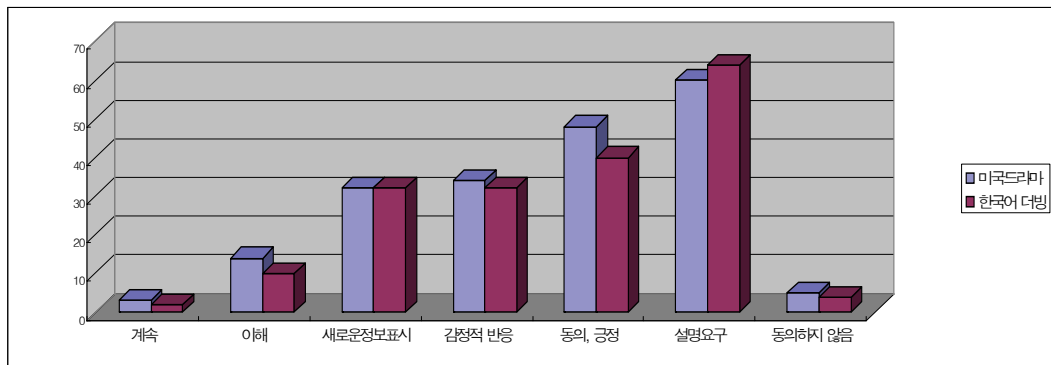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 (가)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은 백채널의 횡수차이가 발생하는가?
- (나)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에서 표현된 백채널 기능과 표현방식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 (다)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간의 백채널 표현은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나는가?
- (라) 등장인물들의 성격별로 백채널 표현과 기능에 차이가 발생하는가?
- (마) 성별에 따라 백채널 표현과 기능에 차이가 발생하는가?

본 연구는 연구 대상과 방법 등에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제한점이 있다.

- (가) 드라마란, 정해진 작가들에 의해 쓰여진 대본에 한정된 시간동안 대화가 진행되므로 실생활에서 쓰이는 생생한 언어생활을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
- (나) 두 종류의 드라마에 국한하여 조사하였다.
- (다) 비언어적인 백채널에 대한 조사는 제외하였다.

3.3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의 백채널 기능 비교



<도표 1>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의 백채널 기능 분포

분석자료/표현방식	계속	이해	새로운 정보표시	감정적 반응	동의, 긍정	설명 요구	동의하 지않음	소계	전체말 차례	비율
PB1-1미국드라마	1	5	7	7	12	25	1	58	362	16%
PB1-2미국드라마	0	3	6	2	3	20	2	36	282	12.8%
DH1-1미국드라마	2	1	9	7	15	10	0	44	321	13.7%
DH1-2미국드라마	0	5	10	18	18	5	3	59	364	16.2%
소계	3	14	32	34	48	60	5	196	1,329	14.7%
PB1-1한국어더빙	0	4	9	6	9	26	1	55	365	15.1%
PB1-2한국어더빙	0	2	3	5	4	21	1	36	283	12.7%
DH1-1한국어더빙	2	1	8	6	12	11	0	40	332	12.0%
DH1-2한국어더빙	0	3	12	15	15	6	3	54	365	14.8%
소계	2	10	32	32	40	64	4	184	1,345	13.7%

<표 1>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의 백채널 기능

(※ PB - 프리즌브레이크, DH - 위기의 주부들)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의 백채널을 비교해 보았을 때, 미국드라마에서의 백채널 횟수가 196회, 더빙본에서의 백채널 횟수가 184회로 미국드라마에서 조금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드라마의 성격과 매 회마다 백채널 표현 횟수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총 4회분의 미국드라마에 나타난 백채널 기능은 설명요구, 동의·긍정, 감정적 표현, 새로운 정보 표시 순으로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미국 드라마의 백채널 분석 결과는 정숙희(2000)의 3단계 원어민학생의 백채널 분석결과와 거의 동일한 것으로, 원어민 학생들은 설명요구, 평가적 표현, 동의에 해당하는 기능을 주로 사용하였다고 말하였다.

우리가 백채널의 기본 기능이라고 보았던 계속의 기능보다 설명요구 기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드라마에서는 정해진 시간내에 주어진 내용을 표현해야하기 때문에 계속표현으로 한사람의 대화가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을 막고, 대화자들간의 적극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설명요구가 많아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정숙희(2000)의 연구에서도 원어민학생들의 경우 다양하고 적극적인 설명요구 기능을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실제로 백채널이 계속, 동의한다는 백채널의 기본적 기능보다는 적극적인 기능이 더 많이 사용되며, 이것이 드라마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총 4회의 한국어 더빙본에서도 역시 설명요구표현이 가장 많고, 동의와 감정적 표현, 새로운 정보표시 기능이 비슷한 횟수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한국어 더빙본이 미국드라마 대본의 문맥을 잘 이해하고 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미국드라마가 한국어 더빙본보다 백채널의 횟수가 조금 더 많게 나타나는 것은, 서구문화권이 한국문화권보다 감정표현에 있어 더 자유로운데, 미국드라마가 한국어로 더빙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문화적인 부분이 적용되어 백채널이 덜 표현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백채널이란 단순히 언어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미국드라마의 백채널 표현이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어떤 기능으로 표시되었는지를 다음의 장면들을 보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미국드라마 - 감정적 표현 VS 한국어 더빙본 - 설명요구

(20) John : Mr. Solis isn't starting to catch on, is he?

Gabrielle : No, no, he doesn't have a clue, god love him.

It's just that when you come over to garden, you
might actually have to garden.

John : ***Great.*** You're breaking up with me in my own bedroom.

Gabrielle : No, no, no. I'm not dumping you.

Lately you've been the only thing keeping me going.

It's just we can't do it at my house anymore.

존 : 아저씨가 눈치를 채신 것 같아요?

가브리엘 : 아니야 아니야 , 그이는 전혀 감도 못잡았어

하지만, 내 생각엔 네가 앞으로 우리집에 와서는 진짜 정
원일만 해야할것 같아서

존 : ***그러니까 지금 끝내자는 거예요?*** 하필 내 방에서

가브리엘 : 아니야, 넌 절대 안버려.

요즘 너는 내 생활의 유일한 기쁨이거든?

단지 우리 집에서는 위험 할 것 같아서

< 위기의 주부들 시즌 1-2 중에서 >

남편 카를로스 몰래 고등학생 정원수 존과 바람을 피는 가브리엘은 남편
에게 들킬 게 두려워서 존의 집으로 몰래 찾아온다. 앞으로 자신의 집에서
는 정원일만 하라는 가브리엘의 이야기에 존은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해
서 화가나서 흥분하는데, 가브리엘은 단지 자신의 집에서만 안될 뿐이라며
자신의 계획을 이야기한다. 미국드라마에서는 자신이 가브리엘에게 차였다

고 생각하는 존이 기분 나쁜 반응을 “great”라고 비꼬며 표현하는데 비해,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설명을 요구하는 표현 “그러니까 지금 끝내자는 거예요?”라는 말로 바뀌어 표현된 것을 알 수 있다.

2) 미국드라마 - 동의 표현 VS 한국어 더빙본 - 설명요구

(21) Sucre : *Wh-What*. You mean yes, yes?

Maricruz : Yes, yes! [They both laugh and Maricruz races at him to kiss him. Breathless, she pulls away quickly.]
There's just one thing.

Sucre : *Of course.* [They kiss again.]

Maricruz : Mama wants us to wait until you get out.

Sucre : *Of course*, of course. [He kisses her again but she pushes him away.]

수크레 : *뭐야*, 그럼 나랑 결혼한다고?

마리크루즈 : 호호, 그래 좋아
어~대신 조건 있어

수크레 : *뭔데?*

마리크루즈 : 엄마가 출감 때까지 기다리래

수크레 : *그래* 얼마든지

<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1-1 중에서 >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 수크레가 마이클의 도움을 받아 애인인 마리크루즈에게 편지로 프로포즈를 하고, (21)장면에서 마리크루즈는 면회를 와서 수크레가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던 프로포즈에 대한 승낙을 나타낸다. 기쁨에 넘치는 수크레에게 마리크루즈는 한가지 조건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미국 드라마를 보면 수크레는 그 조건이 무엇인지 듣지도 않고, 긍정·동의를 표현인 “**of course**” 라고 말하지만,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뭘 데?**” 라며 설명 요구표현을 사용한다. 미국 드라마에서 단순하고 축약된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면,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그에 비해 구체적인 대화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미국드라마 - 일반적인 대화 VS 한국어 더빙본 - 설명요구

(22) Lincoln : Then listen! I was set up! I went there that night to clear a debt.

Crab Simmons was on my ass for the ninety grand I owed him. Told me the mark was some scumbag drug dealer and if I took it, I'd be clean. I never pulled the trigger. All I know is that somebody wanted me in the same garage as Terrance Steadman that night.

Veronica : *Why would somebody want to set you up?*

Lincoln : It wasn't about me, it was about him.

Veronica : *Steadman?*

Lincoln : [Frustrated] Yes!

Veronica : *The guy was like a saint.* All the charity work,

the environmental progress his company was making.
About the only person in this entire country who had
motive to kill him, was you.

링컨 : 끝까지 들어.

함정이었다고.

거기 갔던건 빗때문이야. 그 놈한테 9만달러를 빌렸는데, 그
날 밤 난 빗을 정리하기 위해 그곳에 갔던거야.

난 안 죽었어.

누군가 그날 밤 내가 살인현장에 있게 하려고 그랬던거야.

베로니카 : *왜 너를?*

링컨 : 나 때문에 놓은 덫이 아니야.

베로니카 : *스태트만때문에?*

링컨 : 그래!

베로니카 : *그 성인군자를 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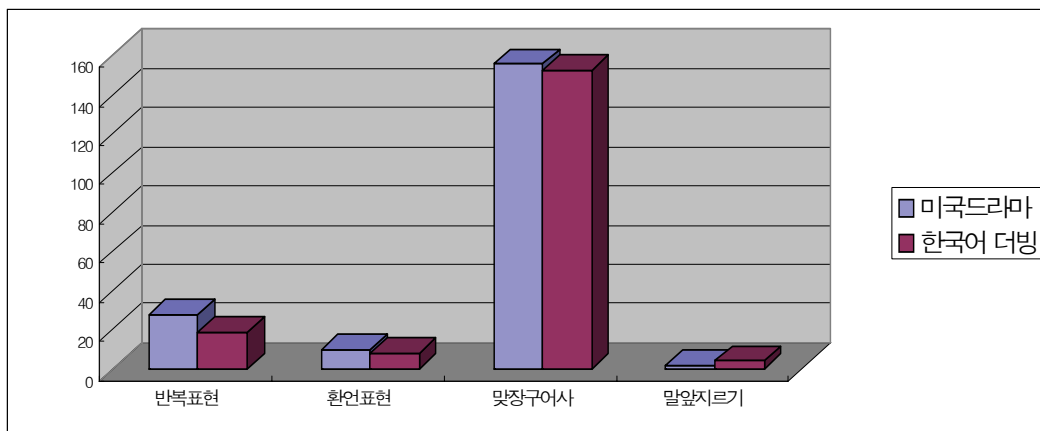
자선사업에다 환경발전을 위해 그의 회사를 만들었고 이
세상에서 그를 죽이기 위한 동기가 있는 유일한 사람은 너
밖에 없었어.

<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1-2 중에서 >

(22) 장면은 교도소에 있는 링컨이 자신을 면회온 베로니카에게 자신이
스태트만을 죽이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은 음모이며, 자신이 아닌 부통령의
동생 스타트만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들은 베로니카는 음

모라는 것과 적이라고는 없을 것 같은 스테드만이 이 사건과 연류되어 있다는 링킨의 주장을 믿지 못한다. 미국드라마에서 베로니카는 “The guy was like a saint.”라며 일반적인 대화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백채널의 설명요구뒤에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보면, 미국드라마에서 백채널표현이 더 많이 나오고, 한국어 더빙본에서 백채널을 적게 사용한 것으로 나오는데, 위 장면은 그와 반대로 미국드라마에서는 일반 발화로 사용되었지만, 한국어 더빙본으로 바뀌면서 백채널표현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3.4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의 백채널 표현형식 비교



<도표 2>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의 백채널 표현형식 분포

분석자료/표현형식	반복 표현	환언 표현	맞장구 어사	말앞지르기	소계	전체 말차례횟수
PB1-1미국드라마	11	5	41	1	58	362
PB1-2미국드라마	7	4	25	0	36	282
DH1-1미국드라마	5	1	37	1	44	321
DH1-2미국드라마	5	0	53	0	58	364
소계	28	10	156	2	196	1,329
PB1-1한국어더빙	6	6	42	1	55	365
PB1-2한국어더빙	5	0	29	2	36	283
DH1-1한국어더빙	3	2	34	1	40	332
DH1-2한국어더빙	5	0	48	0	53	365
소계	19	8	153	4	184	1,345

<표 2> 미국 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간의 백채널 표현형식

백채널 표현형식 또한 드라마별로, 매회별로 차이가 나지만 평균적으로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 모두 백채널의 맞장구어사 표현이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화자가 말한 부분 또는 전체를 다시 사용하는 반복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반복 표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드라마<프리즌 브레이크>시즌 1-1과 한국어 더빙본간에 횟수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미국드라마에서는 반복 표현을 자주 쓰는 반면,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반복이 아닌 일반적인 발화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23)장면은 교도소내 폭력사건에 연류된 마이클이 자신을 독방에 가두려는 교도소장에게, 교도소장이 아내에게 선물할 모형 조립건물을 무너지지

알게 고쳐주겠다며 협상을 하는 장면이다.

(23) Pope : I totally misjudged you, Scofield. I didn't think you were the agitating type. Behavior like that will not be tolerated in my prison. Ninety days in the SHU. That ought to be enough time to convince you of that fact.

Michael : *Ninety days.*

Pope : [Flatly.] *That's right.* [Michael is silent. He looks down at Pope's desk calendar that states that it's the 11th of April.]

Something you want to say?

Michael : [Quietly] It's just, I'm not of much value to you in the SHU.

Pope : *Value?*

Michael : Mmm. The Taj. It would be a shame for the eighth wonder of the modern world to collapse because the stress is not properly propagated.

<Prison Break season 1-1 중에서 >

소장 : 내가 완전히 잘못 짚었군

앞장서서 선동할 줄은 몰랐는데.

내 교도소에서 그런 행동은 절대로 용납못해

독방 90일이면 충분히 반성할 수 있겠지?

마이클 : *90일이오?*

소장 : 정확히 들었군.

'4월 11일 화요일'-달력을 본다

소장 : 할 말이라도 있나?

마이클 : 아~그러니까..독방에 있으면 못 도와드릴텐데.

소장 : ***뭘 말이야?***

마이클 : 타지마할이요. 압력이 제대로 분산되지못해서 이대로 무너져버린다면 너무 아깝지 않겠어요?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1-1 한국어 더빙본 중에서 >

위 대화에서와 같이 미국드라마에서는 마이클이 "It's just, I'm not of much **value** to you in the SHU."라고 이야기하자 교도소장이 마이클이 이야기 중 일부 단어 "**value**"를 다시 사용하여 이야기를 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같은 단어나 문구를 다시 사용하기보다는 설명을 요구하는 발화로 (마이클: 아~그러니까..독방에 있으면 못 도와드릴텐데. 교도소장: ***뭘 말이야?***)로 바꾸었다. 이는 한국어에서는 대화진행에 있어 반복 표현대신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래 (24)장면은 마이클이 형 링컨에게 형을 교도소에서 빼내기 위한 모든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교도소에 들어왔음을 설명하자, 링컨이 마이클의 생각이 얼마나 허황된지를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24) Lincoln : It can't be done. [He pauses as someone walks past.]

Can't be done, Michael. No-one's ever broken out of Fox River.

Michael : [Leaning forward again] Every single step's already been mapped out.

Every contingency.

Lincoln : *Every contingency?* You may have the blueprints to this place but there's one thing those plans can't show you.

People. Guys like Abruzzi.

You so much as look at these cats the wrong way, they'll cut you up.

링컨 : 그건 불가능해.

아무도 폭스강 교도소를 탈출하지 못했어

마이클 : 시나리오는 이미 짜여져 있어.

돌발상황을 대비해서

링컨 : *어림도 없는 소리*

아무리 설계도가 있어도 거기엔 안 나오는 사람이라는 변수가 있어

아브루치 같은 놈들 맘만 먹으면, 너를 단칼에 죽일 수 있어.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1-2 중에서>

위 대화를 보면 원 드라마는 링컨이 마이클의 대사 중 일부를 “**Every**

contingency”를 다시 사용하며 대화를 이어나가지만,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렇듯 더빙본에서는 화자의 말을 다시 따라하는 반복 표현 대신 다른 문장으로 바꾸어 표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미국드라마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백채널 표현은 다음과 같다.

순위	표현형식	남	여	계
1	반복 표현	16	11	27
2	yeah	2	13	15
3	환언 표현	8	3	11
4	oh	1	8	9
5	what	4	4	8
6	O.K./ok/okay	6	1	7
7	good	2	3	5
8	well	2	2	4
8	all right	4	0	4
10	of course	3	0	3
10	really	1	2	3
10	I know	2	1	3

<표 3> 사용빈도가 높은 백채널 표현형식 - 미국드라마

위 표는 미국드라마 4회분을 통틀어서 가장 빈도수가 많은 표현형식을 나타낸 것이다. 남성은 반복 표현, 환언 표현을 많이 사용하며, 백채널의 맞장구어사 표현으로는 “O.K.”라는 동의의 기능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다. 여성은 “yeah”라는 동의, 이해의 기능을 의미하는 표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반복 표현과 함께 “oh”라는 감정표현의 단어를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더빙본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백채널 표현은 다음과 같다.

순위	표현형식	남	여	계
1	반복 표현	10	9	19
2	환언 표현	7	1	8
3	그래	1	5	6
4	말았지르기	1	3	4
4	네	1	3	4
6	뭘데?	2	1	3
6	아	2	1	3
6	오	1	2	3
6	네?	1	2	3
6	뭐?	2	1	3

<표 4> 사용빈도가 높은 백채널 표현형식 -한국어 더빙본

한국어 더빙본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백채널 표현형식을 보면, 남성의 경우, 반복 표현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환언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경우도 역시 반복 표현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그래”라는 동의의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미국드라마에 비해 자주 쓰이는 표현의 빈도수가 적은데, 그 이유는 미국드라마에서는 축약하고, 간단하게 표현하는 문장들을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표현하기 때문에 나온 결과라 짐작 할 수 있다.

3.5. 한국어와 영어의 백채널 표현

	미국 드라마	한국어 더빙
계속	Hmm , yeah,	그래, 어머 그랬어
새로운 정보 표시	oh, oh, yeah, no, oh okay, really, condom?, Let's risk it?, oh, it's upset, he's spending the night?, oh have I, you are kidding, really?, oh well, what?, john?, oh,OK, really, twice?, whitecastle?, level one?, John Abruzzi?, that's fibonacci, that was you?, ninety days?, what?, tonight, I am sorry , I do?	아, 싫어?, 오, 정말이요?, 콘돔? 모험 좀 하자고?, 탈났어요?, 와서 잠을 자요?, 네?, 정말이야?, 네?, 설마요, 그래?, 어머 그래요?, 존?, 오호, 그랬구나?, 정말요?, 두번이요?, 오 진짜요?, 화이트캐슬?, 1급이요?, 싱크대 링컨?, 악당 존 아브루치? 피보나치?, 그래요?, 90일이요?, 뭐야?, 뭐?, 아 그러시군요, 어, 죄송합니다, 뭐라고요?
동의	yes we are, of course, yeah, our life, see, you're right, oh, that's right, well, oh, okay, absolutely, we all do, all right, OK, all right, okay, all right, oh, yeah, oh, it's sort of a new tradition, well, oh, right, right, O.K., I know, all right, that's okay, yeah, okay, gotcha, good to know, I guess so, that's right, I know you didn't, of course, would'nt want to mess with the catholic roots?alright, sure, I know what I saw, oh no no no no	네 그러네요, 그럴께요, 그래, 우리 인생이겠지, 네, ㅎㅎ 마음대로, 아 참 그랬지, 네, 아~ 알았어요, 그래, 그럼, 그렇지 뭐,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알았다고, 하하 그러죠, 그래, 아 새로 생긴 전통이야, 그래, 그래요, 오오 어머, 아 그래요, 그렇지, 네, 아 괜찮아요, 오 맞아요, 알았어요, 알고있어, 명심하죠, 잘 알고 있어요, 걱정마세요, 아마 그렇겠죠?, 그래, 얼마든지, 가톨릭교회만 찾을거야, 흠.알았어요, 네 물론이죠, 나도봤어, 맞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감정적 반응	ah yes, hmm, good for you, oh, well, it's okay?, oh, that would be fun, good, yeah right, he did? Cool, great, I'm glad I could help, Oh, that sounds so good, That's a good idea, that a girl, oh my god, oh god, oh that's great, oh oh passion, admirable, It's too bad, wh-what, okay, you see that's funny	어,허, 그거 잘했네, 오, 괜찮아?, 오우, 오, 거 재밌겠네, 잘됐네, 좋아, 농담?, 잘됐네, 도움이 됐다니 기쁘네, 아, 어머, 으음 , 별 걱정을 다하네, 그거 좋은 생각이다, 잘됐네요, 세상에 너무 멋져, 오 세상에, 어 진짜 잘됐네요, 잘됐군, 오~그래 열정, 좋아, 훌륭하십니다, 아쉽네요, 좋아요 허, 어렵도 없는 소리, 그제 피한다고 피해지는지 알아?, 헛, 참 재미있네

<표 5> 한국어와 영어의 백채널 표현(1)

	미국 드라마	한국어 더빙
설명 요구	<p>what's that, how'd you get that?, why, what, and did he?, then why aren't you happy?, so do you love him?, well then, why are we here?, excuse me, why, where, what, so then, why what, what makes you say that?, where is he?, what's the second commandment?, linc the sink, where can I find him?, there a way I can get to him?, .PI. What's that?, Why's that?, in a letter, somebody messed with us?, what is it? who was this someone, like origami, you knew Marla, You mean west wilmington, what is this all about, where's fibonacci, value, properly progagated, for what, gone forever, that a compliment, what, so, why not, you've seen the blue prints, there a reason? so, the infirmar-y-, what the hell's a pugnac, which is, the idea, your telling me this whole things, Every contingency?, what you got a key?, who, huh you family?, with what?, Why would somebody want to set you upsteadman? ,yeah, so, who whowho who can't get to us?, what do you mean?, like what?, who's here latisha, what do you mean?</p>	<p>그게 뭔데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왜요?, 뭐?, 뭔데?, 약속지켰어요?, 근데, 왜 불행하세요?, 그럼 아저씨 사랑해요?,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뭐라고요?, 왜?, 어디로요?, 뭔데?, 그러니까 지금 끝내자는거예요?, 어디서 하죠?, 뭐가 왜요? 그가 왜 형편없어요? ,어디갔는데?, 두번째는 뭐니까?, 어디가면 볼수 있지?, 어떻게 만나지?, PI? 그게 뭔데?, 왜 그런데?, 편지로?, 누군데 우리일에 끼어들어?, 이게 뭔데?, 어떤 놈이 찾아냈는데?, 오리처럼 생긴거?, 말라를 알아?, 자네가 어떻게 알지?, 이스트 파밍턴?, 무슨 꿍꿍이로 이래?, 피보나치는 어딴거?, 뭘 말이야?, 모양이 무너질거라고?, 왜?, 살아있을때 말야?, 뭔데?, 칭찬인가요?, 왜요?, 그래서요?, 왜 못하는데?, 설계도를 봤구나?, 이유가 뭐죠?, 그래서?, 의무실이 뭐?, 대체 그게 뭔데?, 어떤 일?, 맘대로 될까?, 모든 계획이 알약 몇알에 달렸다고? 뭐 열쇠라도 가졌어?, 누구?, 그럼 가족인가요?, 무슨 도움이요?, 뭐?, 왜 너를?, 스테트만 때문에?, 그 성인군자를 왜?, 네 그런데요? 저기 잠깐만요, 접근하다니 누가요?, 그게 무슨 뜻이죠?, 어떤 진실이요?, 누구말이에요?, 뭐가요?</p>
이해	<p>yeah, o.k., ah, oh, I know, it's totally understood, I know I know, uhuh, Eh , well, veronica donovan?</p>	<p>네, 알았어요, 어 그래, 아, 접수했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아하~, 그럼, 베로니카 말이군</p>
동의하지 않음	<p>it's not just any rose, traditional, huh?, the evidence was cooked, nothing transcende race, no overdose</p>	<p>그냥 장미가 아니예요, 호호 전통이요?, 조작된 증거야, 여기서 인종을 넘어서는 건 아무것도 없어.</p>

<표 5> 한국어와 영어의 백채널 표현(2)

표현형식을 보면,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 모두 백채널에 있어서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국어에도 ‘맞장구’라고 표현되는 백채널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배소현(1998)과 박미경(2006)의 연구에 따르면, 일본어와 한국어의 맞장구를 비교해보면 일본어가 훨씬 다양한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백채널을 비교하였을 때에는 한국어가 좀 더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 결과가 실생활의 대화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지는 추후에 더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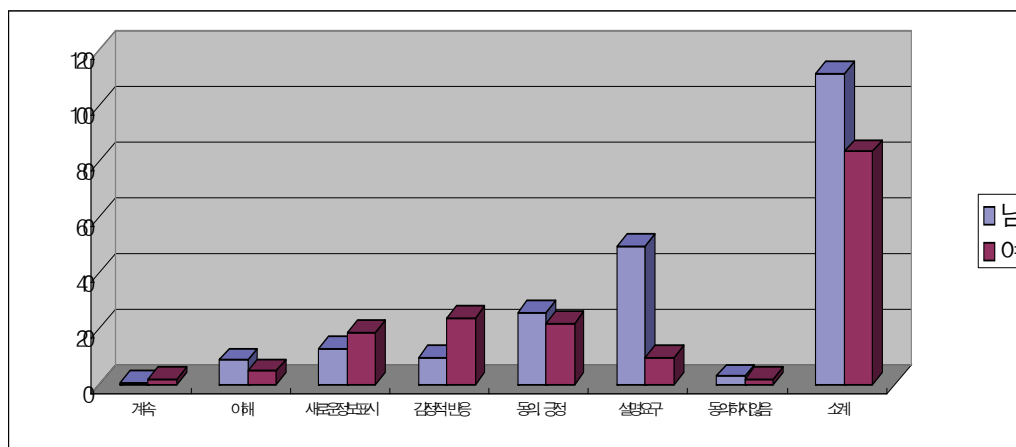
3.6. 등장인물 성격에 따른 백채널 비교 - 미국드라마

분석 자료	성명	기능 /성별	계속	이해	새로운 정보표시	감정적 반응	동의·공정	설명요구	동의하지 않음	소계
프리즌 브레이크	마이클	남	1	2	6	1	4	14	1	29
	링컨	남	0	0	1	1	2	10	1	15
	베로니카	여	0	0	4	0	1	7	0	12
	수크레	남	0	0	1	2	4	0	0	7
	C-NOTE	남	0	1	0	1	0	2	0	4
	아브루지	남	0	0	0	0	0	4	0	4
	사라	여	0	0	0	1	2	0	0	3
	교도소장	남	0	0	0	0	1	2	0	3
	캘러맨	남	0	0	0	2	1	0	0	3
마기오	남	0	0	1	0	0	2	0	3	
소계			1	3	13	8	15	41	2	83
위기의 주부들	수잔	여	0	1	5	4	11	1	0	22
	르넷	여	2	0	3	1	4	0	1	11
	마이크	남	0	1	3	1	4	2	0	11
	가브리엘	여	0	2	0	7	0	1	0	10
	존	남	0	0	0	1	0	7	1	9
	브리	여	0	0	3	4	1	0	0	8
	이디	여	0	0	1	2	1	0	1	5
	줄리	여	0	0	2	2	1	0	0	5
	카를로스	남	0	0	0	0	3	0	0	3
렉스	남	0	0	0	0	3	0	0	3	
폴	남	0	0	0	0	2	1	0	3	
소계			2	4	17	22	30	12	2	89

<표 6> 등장인물 성격에 따른 백채널 비교

위 표를 보면, 드라마의 성격과 주인공들의 성격에 따라 백채널 사용 횟수와 표현방식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리즌 브레이크>에서 마이클과 링컨은 죽음을 직면하게 되는 촉박한 상황과 교도소를 무사히 탈출해야 한다는 긴장감 때문에, 변호사인 베로니카의 경우 링컨의 무죄를 입증하고, 이를 둘러싼 음모를 파헤치기 위해 설명요구 기능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위기의 주부들>은 드라마의 성격상 <프리즌 브레이크>보다는 긴장감이나, 위기감이 덜하며, 주인공의 성격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전체적으로는 동의·긍정 기능과 감정적 반응 기능, 설명요구 기능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위기의 주부들>에 나오는 수잔의 경우, 다정하며 따뜻하고, 어린아이같은 성격을 반영하듯이, 긍정·동의를 많이 사용하며, 화려한 생활을 좋아하고 감정표현이 유별난 가브리엘은 감정적 반응 기능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백채널은 인물의 성격과 많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브리엘의 집에서 정원사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인 존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가브리엘에 의해 이리 저리 끌려다니는데, 매 상황마다 가브리엘의 행동과 말을 이해할 수 없어서 설명요구 기능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위기의 주부들>에 나오는 남성들은 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동의표현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위기의 주부들>이 여성중심의 드라마이다 보니, 여성들에 비해 남성들의 존재감이 다소 작고, 자신의 의견도 강하게 표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7. 성별에 따른 백채널 기능 및 표현형식 비교 - 미국드라마



<도표 3> 성별에 따른 백채널 기능 분포

기능 /성별	계속	이해	새로운 정보 표시	감정적 반응	동의 긍정	설명 요구	동의하지 않음	소계	전체 말차례 횟수	비율
남	1	9	13	10	26	50	3	112	732	15.3%
여	2	5	19	24	22	10	2	84	597	14.1%
소계	3	14	32	34	48	60	5	196	1,329	14.7%

<표 7> 성별에 따른 백채널 기능 비교

성별에 따른 전체 말차례 횟수 대 백채널 횟수를 따져보면, 큰 차이는 아니지만,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약간 더 많은 백채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배소현(1998)은 여성이 남성보다 백채널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고, 우찌다(1993)에 따르면, 남성은 상대방의 이야기에 끼어들거나, 자신과 의견이 다르거나 흥미가 없으면 침묵으로써 회화의 순번을 위반하여 회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경향이 있어, 여성은 아무래도 맞장구표현이 많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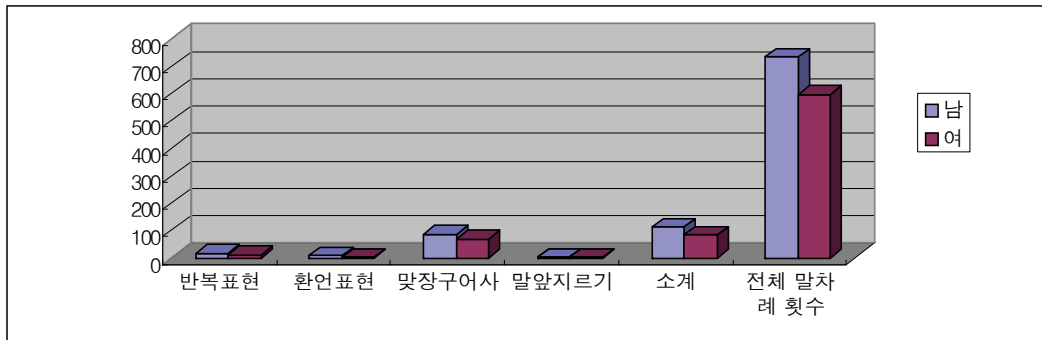
져 청자의 역할을 하는 일이 많아진다고 하였다.⁶⁾ 또한, Lakoff(1975)는 여성은 사회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치장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친절하려고 애쓰는데, 외모에 대한 관심과,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단정하고 고상하게 보이려는 것 등은 주의의 이목을 신경써야 하는 사회적 상황속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여러 연구에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백채널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는데, 박미경(2005)의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한일 맞장구 비교연구에서는 남성의 백채널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백채널의 기본적인 호응 기능보다는 적극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백채널 기능이 많아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실제 대화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백채널 기능의 사용빈도를 보면, 남성의 경우, 설명요구의 기능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뒤로 긍정·동의, 감정적인 반응 순으로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경우, 감정적인 반응, 동의·긍정의 기능이 비슷한 횟수로 사용되었으며, 그 뒤로 새로운 정보 표시 기능을 많이 사용하였다. <프리즌 브레이크>에서는 남자주인공들이, <위기의 주부들>에서는 여자주인공들이 많은 비중의 발화를 하고 있으며, 두 드라마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은 차치하고서라도, 남자들의 경우, 화자의 이야기에 호응을 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끌여가는 편이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실제 대화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정숙희(2000)는, 3단계 원어민학생들의 실험에서, 남학생은 발언권을 확보하기 위해, 여학생은 화자의 이야기를 거들어주기 위해 백채널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6) 우찌다(1993)의 연구내용과 주장은 배소현(1998)을 참고한 것임

다음은 성별에 따른 백채널 표현형식 비교이다.



<도표 4> 성별에 따른 백채널 표현형식 분포

분석자료/ 표현형식	반복 표현	환언 표현	맞장구 어사	말앞지르기	소계	전체 말차례 횟수	비율
남	17	7	87	1	112	732	15.3%
여	11	3	69	1	84	597	14.1%
소계	28	10	156	2	196	1,329	14.7%

<표 8> 성별에 따른 백채널 표현형식

성별에 따른 백채널 표현형식비교에서는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에 비해 맞장구어사 표현뿐만 아니라, 반복, 환언 표현도 더 많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배소현(1998)이, 한·일 두 나라 남자들 모두 「반복」, 「말앞지르기」, 「바꿈말(환언)」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은 상대의 말에 끼어들거나, 회화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남자의 언어표현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여성보다는 남성들이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영어교육의 중요한 목표인 현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의사소통 전략인 백채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우선 백채널에는 어떠한 기능과 형식이 있으며, 한국어와 영어에서는 백채널 사용이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는지, 인물의 성격과 성별에 따라 백채널 표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첫째,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 모두 백채널 기능 중 설명요구기능이 가장 많고, 그 뒤로 동의·긍정의 기능, 감정적인 반응의 기능, 새로운 정보 표시 기능이 나왔다.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의 백채널 횟수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한국어 더빙본이 원 드라마의 문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백채널 표현을 적절히 반영하여 표현하였다고 보여지지만, 미국드라마에서의 백채널 기능을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다른 기능으로 바꾼 경우도 보였다. 예를 들어 미국 드라마에서는 감정적 반응의 기능이나 동의의 기능을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설명요구 기능으로 바꾼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서구문화권이 동양문화권보다 감정표현이 더 많은데, 언어란 그 언어가 속한 사회,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미국드라마와 한국어 더빙본 모두 백채널 맞장구어사 표현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그 뒤로 반복 표현, 환언 표현, 말앞지르기 순으로 나왔다. 사용빈도가 높은 백채널 표현을 보면, 미국드라마와 한국어더빙본 모두 반복 표현이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반복 표현, 환언 표현, 말앞지르기 외의 맞장구어사 표현으로는 미국드라마에서는 ‘yeah’, ‘oh’, ‘what’, ‘o.k.’, ‘good’ 등이, 한국어 더빙본에서는 ‘그래’, ‘네’, ‘뭔데?’, ‘아’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셋째, 등장인물의 성격에 따라 백채널 사용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성격의 등장인물의 경우, 설명요구의 기능이 많이 나타났고, 다정하고 감성적인 성격의 등장인물의 경우, 감정적 반응의 기능 또는 새로운 정보 표시, 동의의 기능이 많이 사용됨을 알 수 있었다.

넷째, 미국드라마에서의 백채널 기능을 보면, 남성들은 설명요구 기능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그 다음으로 동의·긍정의 기능이 많고, 여성들은 감정적 반응의 기능, 동의·긍정의 기능, 새로운 정보 표시 기능이 고루 표현된 것을 볼 수 있다. 인수정(2006)에 의하면 기존의 여성어라고 특징지어졌던 언어현상, 즉 울타리 표현과 의문문, 부가 의문문 모두 남성들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탄사와 같은 감정적 표현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감탄사와 강조표현은 내재된 감정을 과장되고 풍부하게 표현하려는 여성 고유의 언어형식”(인수정, 2006)이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로, 본 연구에서도 여성들이 감정적 반응의 기능, 새로운 정보 표시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섯째, 미국드라마에서의 백채널의 표현형식을 보면, 남성들의 경우 여성들보다 백채널 맛장구어사 표현이 많고, 반복 표현, 환언 표현 등도 여성보다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 표현, 환언 표현 등의 표현이 더 많은 것은, 남성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다는 여러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상호간의 문법적인 대화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른 의사소통전략, 문맥 등이 어우러져서 이루어져야 한다. 백채널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전략으로서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영어교육의 주요 목적은 실제상황에서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적절한 백채널 사용을 연습하게 함으로써 영어회화에 있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업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백채널 교육방법은, 우선 학생들에게 백채널 기능과 표현형식을 미리 설명해준 후, 좋아하는 미국 드라마나 영화의 대본을 함께 보며 백채널 표현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그룹별로 다른 상황을 주고, 학생들이 대화문을 만들어 직접 상황극을 하도록 하여, 실제로 백채널을 사용하여 대화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후 연구로는, 시간의 제약을 덜 받는, 실제 대화를 분석하여 실제 대화에서의 백채널의 기능 및 표현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어 드라마와 미국 드라마를 비교하고,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백채널의 비언어표현 등을 포함한 백채널의 심층 연구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분석자료

1. Scheuring, Paul (2005) The script of Prison Break season 1-1, 1-2
2. Marc, Cherry.(2004) The script of Desperate Housewives season 1-1,
1-2
3. (2007) 프리즌 브레이크 시즌 1-1 한국어 더빙본, SBS
4. (2006) 위기의 주부들 시즌 1-1 한국어 더빙본, KBS

참고 문헌

- 김미영 (2008). *영어교과서와 원어민 저자 회화교재 대화문 비교 연구-사회언어학적 변인과 의사소통 전략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노은희 (2001). 협조적인 대화의 맞장구. *東西文化연구* 9, 홍익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 노은희 (2002). 청자의 맞장구 유형과 기능 연구. *화법연구* 4: 245-269.
- 박미경 (2005). *맞장구표현에 관한 韓·日 比較研究 - 드라마 『겨울연가』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선용 (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국어 맞장구 어사 기능 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소현 (1998). *맞장구표현에 관한 한일대조고찰*.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와타나베 에미코 (1994). 일본어 학습자의 ‘맞장구’ 분석 - 전화 회화에 사용된 언어적인 맞장구 -. *일본어교육* 82호 일본어교육학회 P.110
- 우찌다 노부코(1993). 회화행동으로부터 보여지는 성차. *일본어학* 12-13 매이지 서원 P.156
- 이원표 (2002). *담화분석-방법론과 화용 및 사회언어학적 연구의 실례-*. 한국문화사
- 인수정 (2006). *미국 시트콤과 영화를 통해 살펴본 남녀간 언어차이*.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귀열 (2005, 7월 25일). 임귀열 영어. 한국일보.

- 임영철 (2006). 언어행동에 있어서의 배려표현. *일본연구*, 28: 33-45.
- 정숙희 (2000). 백채널 피드백 전략 교수가 영어 의사소통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고등학교 영어학습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rtrand, Roxane, Gaëlle Ferré, Philippe Blache, Robert Espesser, & Stéphane Rauzy (2007). Backchannels revisited from a multimodal perspective. *Auditory-visual Speech Processing* Hilvarenbeek: Netherlands.
- Brunner, Lawrence J. (1979). Smiles Can Be Back Chann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37, No. 5: 728-734.
- Cogdill, Sharon, T. Fanderclai, J. Kiloborn, & M. G. Williams(2001). Backchannel: Whispering in Digital Conversation. *SystemSciences*.
- Drummond, Kent & Robert Hopper (1993). Back Channels Revisited: Acknowledgment Tokens and Speakership Incipiency. *Research on Language & Social Interaction*, 26(2), 157-177.
- Duncan, S. Jr. (1974). On the Structure of Speaker-Auditor Interaction during Speaking Turns. *Language in Society*, Vol. 3, No. 2: 161-180.
- Gardner, R. (1997). The listener and minimal responses in conversational interaction. *Prospect*, 12(2), 12-32.
- Hess L. J. & J.R. Johnston(1988) Acquisition of backchannel listener responses to adequate messages *Discourse processes* vol. 11 319-335.
- Lakoff, Robin Tolmach (2004) Language and Woman's Place. In Mary

Bucholtz ed., *Text and Commentaries*. Oxford University Press, Inc.

Maynard, Senko K. (1997) Analyzing interactional management in native/non-native English conversation: a case of listener response. *International Review of Applied Linguistics in Language Teaching*; 35.

Mey, Jacob L. (2001) *Pragmatics -An Introduction-* second edition, Blackwell.

Olateju, Moji A. & Yisa Kehinde Yusuf (2006). Backchannel Communication in Ola Rotimi's *Our Husband Has Gone Mad Again*. *Nordic Journal of African Studies* 15(4): 520-535.

Uematsu, Shigeo (2000). The use of Back Channels Between Native and Non-native Speakers in English and Japanese.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tudies* X: 2.

Ward, Nigel & Wataru Tsukahara (2000). Prosodic Features which Cue Back-channel Responses in English and Japanese, *Journal of Pragmatics*.

Yngve, Victor H. (1970). On getting a word in edgewise. *the 6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567-578.

ABSTRACT

A Comparative Analysis of Backchannel Expression in American dramas and their Korean Dubbed versions

Kim, Hye-Ran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Conversation doesn't mean one-way communication from a speaker to a listener. It should be interactive between them. So the role of the listener is as crucial as that of the speaker in a conversational situation. When the listener responds to the speaker adequately, the conversation becomes more active and richer. The verbal or nonverbal responses the listeners show in a conversation are called 'Back Channels,'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effective communication.

One of the main goals of English education is 'to enhance fluent communication abilities in a real situation,' which was reflected in the revised education curriculum in 2007.

This study has analyzed backchannel expressions of American dramas and their Korean dubbed versions. It has examined how they are different in forms and functions. It also has analyzed backchannel expressions and their functions according to gender and characters. Finally, some practical suggestions are made as to how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in class.

In the first chapter, this study covers the research objectives and

necessity of backchannel. In the second chapter, the definitions and functions and forms of backchannel are distinguished and previous studies are reviewed. In the third chapter, the backchannels which appeared in both American dramas and their Korean dubbed versions are compared. It analyses differences between backchannel's functions and expressions according to characters and genders in the American dramas. Finally the study results and some suggestions are in the fourth chapter.

This study's som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larification request functions' were the highest in both original and dubbed dramas. 'Agreement,' 'emotional response functions,' and 'newsmarker' were followed accordingly. Because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number of backchannel usages in both versions, it could be said that a dubbed version faithfully reflected the contexts of its original one. In some cases, the Korean dubbed version changed backchannel functions of the original ones to normal conversations. This can explain that people express their personal feeling more easily in the western cultures than in the oriental cultures. In other words, this means that languages are affected by both a culture and a society.

Secondly, utterances such as 'yeah,' 'oh,' and 'o.k.' were the highest in both original and dubbed dramas. 'Repetitions,' 'changing words,' and 'guessing words in advance' were followed. Repetitions were most frequently found in both an original version and a dubbed one. Besides repetitions, changing words and guessing words in advance, some expression are 'yeah,' 'what,' 'oh,' 'o.k.,' 'good,' and etc in the original dramas, and 'Grae(O.K.),' 'Ne(Yes),' 'Monde?(what?),' in the Korean equivalents.

Thirdly,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using backchannel according to characters in a drama. If the character was reasonable and logical,

she was likely to use more explanatory expressions. On the other hand, if the character was more emotional and sentimental, she was likely to use more expressions which contained feeling or newsmarker, and agreement.

Fourthly, in terms of back channel functions in American dramas, male requested overwhelmingly explanations. Agreement(positiveness) were the next. However, newsmarker, emotional expression, agreement(positiveness) were being equally used by female.

Fifthly, in the comparison of using backchannel according to gender, male characters not only used more backchannel expressions but also they used more repetitions and changing words than female characters. This finding confirms the previous researches that males express their opinions more actively than females do.

In order to do effective communication, we need not only conversation based upon grammar but also contextual communication tool. This study confirms that back channel plays a very crucial role in conversation as an effective communication tool.

One of the main purposes of English education is to enhance natural communication abilities in a real situation. Therefore students need to learn and practice the use of backchannel expressions to improve their communication abilities in class. In order to introduce backchannel method to students, the functions and expressive forms of backchannel should be explained in advance and let them find out some backchannel expressions in their favorite American dramas. And teachers can give them different situations and let them make situational dramas with back channel expressions and practice them in class.